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보험사에 추가 면세 혜택 부여

- 중국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초 만기 1년 이상 환급형 생명보험 상품의 영업세를 면제한 데에 이어 영업세 면제 범위 확대, 기업소득세 면제 등 추가 세금우대책을 잇달아 발표함.
 - 이번 조치로 일반 생명보험 상품의 영업세 면제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세금우대혜택은 보험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보장기금과 책임준비금의 기업소득세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됨.
 -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납입한 보험보장기금과 책임준비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입을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됨.
 - 중국 정부는 연이은 재정 지원책을 통해 중국 보험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악화된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실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업 세금우대책으로 보험업계가 3년간 약 4,200만 위안 규모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‘보험보장기금 수납기준 규정’에 따라 손해보험의 보장기금은 비투자형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0.8%이내, 투자형이면서 수익율 보장상품은 0.08%, 무보장 상품은 0.05%를 상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생명보험의 수익율 보장상품과 무보장 상품은 각각 0.15%와 0.05%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이 비율과 더불어 현재 보험회사들이 납입하고 있는 보험보장기금이 작년 말 이미 200억 위안을 넘어선 상황을 고려해 볼 때, 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연간 약 1,400만 위안, 3년 동안 총 4,200만 위안의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신문만보 5/11)